나라마치 민화 지도

1 렌쵸지(절)의 용

긴테쓰나라역

ひがしむき

2 '히가시무키'의 유래

369

도다이지(절)

난다이몬(문)

9 로벤 스기(삼나무)

8 기시모진과 석류

히가시무키(거리)

西 南 東

고후쿠지(절)

산죠도리(거리)

JR나라역

하코야

3 우네메신사의 유래

모치이도노(거리)

국립박물관

7 쥬산가네의 이시코즈메

기누카케 야나기
(버드나무)

가스가타이샤(신사)

야스라기노미치(거리)

もちいどの

4 '모치이도노'의 유래

6 후신가쓰지의 귀신

나라마치오오도리(거리)

754

간고지(절)

도쿠유지(절)

5 쥬죠히메

단죠지(절)

신야쿠시지(절)

나라교육대학

JR 교바테역

ならまち民話地図

발행: 나라교육대학 대학원 "지역과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
감수: 다케하라 다케시게 · 아오키 사토시 그림: 마스다 케이코 · 야마사키 아야노

N

지도의 민화 장소에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1 렌쵸지(절)의 용

렌쵸지의 내진 천장에는 가노 모토토시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용 그림이 있다.
옛날, 이 용은 밤이 되면 그림 속에서 빠져나와 인근의 논과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에 렌쵸지의 스님이 용의 눈과 비늘 석 장을 먹으로 덧칠하였더니 용은 다시는 천장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 용 그림은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도사가 용과 대결하면서 용의 신통력을 가두어두기 위해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한다.

2 히가시무키의 유래

긴레쓰나라역에서부터 난토 은행 본점까지를 히가시무키라고 부른다. 옛날, 이 지역은 자치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긴레쓰역 근처의 모임을 나카마치, 난토 은행 근처의 모임은 미나미마치라고 불렀다고 한다. 후에 두 자치회를 하나로 합쳐 히가시무키 상점가라는 매우 큰 상점가가 되었다.
히가시무키라고 부르는 이유는, 메이지시대 중반까지 건물을 동향(히가시무키)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즉, 거리의 서쪽에 집을 지어서 모두 동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동쪽은 고후쿠지(절)의 토담이었다고 한다.

3 우네메신사의 유래

사루사와이케(연못)의 동쪽 언덕에는 기누카케 야나기라는 버드나무가 있고, 서쪽 언덕에는 우네메신사가 있다. 우네메신사는 연못을 등지고 서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의 뒤쪽에 토리이(신사의 문)가 있다. 일본에서도 뒤편에 토리이가 있는 신사는 이곳뿐이라고 한다.
옛날, 나라의 천황을 섬기던 우네메(궁녀)가 있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우네메는 천황의 눈에 들어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단 한 번뿐으로, 그 이후로 다시 부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우네메는 세상을 비관하며 사루사와 연못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그때 벗은 옷을 걸어둔 버드나무가 기누카케 야나기이다.
그 후, 우네메를 추모하여 우네메신사를 지었다. 연못을 향해 신사가 지어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루사와 연못을 보는 것이 한스러웠는지, 신사가 하룻밤 만에 뒤로 돌아버렸다고 한다.

4 모치이도노의 유래

もちいどの

엔노교자(수행자)가 오오미네야마(산)에 사찰을 세우고 200년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다.
오오미네야마 산의 아코라키라는 폭포에 오로치(이무기)가 살면서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일삼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산을 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어 신성한 장소는 점차 황폐해져 갔다.
이 때, 오오미네야마를 중흥시킨 리겐 대사가 "오로치를 퇴치하라" 는 칙명을 받았다. 리겐 대사는 나라에 살고 있던 오오미네야마의 지도자인 하코야 간베이를 불러 도움을 받기로 했다. 간베이는 굉장한 힘과 용기의 소유자로 큰 소라고동을 불었다.
두 사람은 오로치를 꾀어내어서 리겐 대사가 법력으로 오로치를 주술로 묶고, 간베이가 칼로 오로치를 반으로 갈라버렸다. 그리하여 오오미네야마는 영험한 기운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코야 간베이는, 리겐 대사를 방문할 때면, 언제나 리겐 대사가 좋아하는 모치(떡)를 나라에서 선물로 가지고 갔다. 그래서 리겐 대사는 간베이를 모치이도노라고 불렀다. 현재의 지명은 모치이도노가 살던 곳에서 비롯되었다.

5 쥬죠히메

단죠지(절)은 쥬죠히메가 태어난 절이다.
쥬죠히메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하세데라의 관음보살께 빌었다. 그러자 꿈에 관음보살께서 나타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너희 둘 중 한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느냐?"라고 말했다. "예, 상관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쥬죠히메가 태어났다. 쥬죠히메는 금이야 옥이야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쥬죠히메가 세 살이 되던 해, 관음보살과의 약속대로 쥬죠히메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쥬죠히메를 불쌍히 여겨 계모를 맞았다.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귀여워라. 이 과자 좀 먹어보렴"라고 말하며, 쥬죠히메를 귀여워하는 척 했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 "너 같은 건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추워도 네게 줄 옷은 없어"라고 말하며 심술을 부렸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자 더욱 쥬죠히메를 괴롭혔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쥬죠히메를 소나무에 묶어 괴롭혔는데, 그 소나무는 지금도 도쿠유지 절에 남아 있다.
쥬죠히메는 그 후 다이마데라(절)에서 출가하여 여승이 되었다.

6 후신가쓰지의 오니(귀신)

고쇼노바바쵸와 가사사기쵸 사이의 동서로 좁은 골목을 후리간즈시, 후진가쓰지라고 부른다.
옛날, 후신가쓰지에 마쓰우라라는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노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노인은 도둑을 붙잡아 기온야마(산)의 골짜기 아래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자, 죽은 도적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 매일 밤 간고지(절)의 종루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후에, 간고지의 법사가 된 도죠 스님은 당시에는 동자승이었지만, 어느 날 밤 "제가 귀신을 퇴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종루 뒤에 숨어서 귀신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귀신이 나타났다. 동자승은 귀신에게 덤벼들었다. 동자승과 귀신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아침이 밝아 오자 귀신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자승은 뒤쫓았지만, 지금의 후신가쓰지 부근까지 오자, 귀신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리 둘러봐도 귀신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곳을 후신가쓰지(수상한 십자로). 후리간즈시라고 부르게 되었다. 간고지의 종루는 지금은 신야쿠시지(절)로 옮겨졌지만, 종에는 귀신의 손톱 자욱이 잔뜩 남아 있다고 한다.

7 쥬산가네의 이시코즈메

옛날부터 사람들은 나라의 사슴을 신의 사자로 여기며 소중히 다루어 왔다. 가스가신사의 신이 나라로 올 때, 사슴을 타고 왔다고 전해진다. 그런 존귀한 사슴을 죽인 사람은 죽은 사슴과 함께 구덩이에 산 채로 매장당하는 [이시코즈메 형벌]에 처했다고 한다.
보다이지의 오미도(절)는 흔히 십삼종이라고도 불린다. 옛날, 이 당의 옆에는 서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산사쿠라는 아이가 이 서당에서 "이로하, 이로하" (한글의 ㄱ ㄴ ㄷ)라고 말하며 글 연습을 하자 사슴이 서당으로 들어와 중요한 책을 먹기 시작했다. 산사쿠는 놀라 "이놈"이라고 외치며 무심코 근처에 있던 문진을 사슴에게 던졌다. 사슴은 그 문진을 맞고 쓰러져 죽었다.
사슴을 죽인 산사쿠는 이시코즈메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 오미도의 정원 동쪽에 구덩이를 파고 산사쿠를 죽은 사슴과 함께 묻었다.
산사쿠의 어머니는 산사쿠가 묻힌 곳에 단풍나무를 심고 공양하였다. 그때부터 [사슴과 단풍]이라는 조합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산사쿠의 이시즈메가 행해진 시각이, 오후 6 시와 7 시 사이이었기 때문에 6 과 7 을 합하여 쥬산가네(십삼종)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8 기시모진과 석류

기시모진은 여신의 이름이다. 사람 고기 먹는 것을 좋아하여 아이들을 유괴하여 잡아먹었다.
어느 날, 석가는 기시모진의 나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시모진의 아이 중 한 명을 숨겼다. 기시모진은 혈안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찾아다녔다. 석가는 "너는 수많은 아이 중 단 한 명이 없어져도 그렇게 슬픈데, 인간은 아이도 몇 없는데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 것을 그만두고 덕을 쌓거라"라고 말했다.
기시모진은 "부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잡아가지 않게 되었다. 석가는 "먹고 싶다면, 사람의 고기와 닮은 석류를 먹어라"라며 석류를 건넸다.
그래서 석류 철이 되면, 기시모진을 모시는 곳에서는 석류를 공양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9 로벤스기(삼나무)

옛날, 오미 지방의 시가 마을에 신앙심 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관음보살께 "아이를 점지해 주세요"라며 매일 밤 기도를 올렸다. 얼마 후 옥처럼 고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어머니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이를 소중히 키웠다.
아이가 두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뽕잎을 따러 갔다.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아이를 잡아채 날아가 버렸다. 독수리는 아이를 잡은 채 남쪽으로 날아갔다.
독수리는, 나라의 도다이지(절)까지 오자, 니가쓰도우의 무대 아래의 삼나무에 멈췄다. 마침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도다이지의 스님 기엔 승정이었다. 기엔 승정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삼나무 위에 남자아이가 있는 것이었다. 기엔 승정은 깜짝 놀라 아이를 나무에서 내려 키웠다. 아이는 기엔 승정에게 양육되어 로벤 승정이라는 훌륭한 승려가 되었다.
로벤 승정은 니가쓰도우의 삼나무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매일 절을 올렸다. 그래서 이 삼나무는 로벤스기라고 불리게 되었다.
로벤 승정의 어머니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삼십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어느 날, 어머니는 요도가와(강)의 배에서 한 여행자로부터 "그 유명한 로벤 승정은 아기 때 독수리에게 잡혀 도다이지에서 구조된 분이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곧장 나라로 달려가 드디어 도다이지의 삼나무 밑에서 아들을 만났다.

설화출처: 신도 히데키 · 다케하라 다케시게 · 마루야마 아키노리, 『나라시 민간설화 조사보고서』

풀이: 무라카미 가오루　　한국어판　감수: 임남수　번역: 주석환